# 崔滋의 詩評

## ——李奎報와의 關聯을 主로하여——

車 柱 環*

## 一. 前 言

李奎報(1168~1242)의 白雲小說[1]에 다음과 같은 記事가 있다.

三韓은 夏 때에 처음 中國과 통했는데, 당시의 文獻에 관해서는 전연 들은 바 없다. 隋·唐 이래로 비로소 作者가 나왔다. 乙支文德이 隋나라 장수에게 詩를 보낸 것, 新羅의 女王이 唐나라 皇帝에게 頌詩를 바친 것 같은 것은 記錄에 남아 있다고는 하나 쓸쓸할 만큼 그 수가 적다. 崔致遠(857~?)이 唐에 가서 科擧에 及第하기에 이르러서야 文章으로 海內에 이름을 날렸다. 詩가 한 聯 있다.

崑崙山이 동쪽으로 달려
다섯 산은 푸르고
星宿 북녘으로 흘러
온 물이 누렇다.

同年 顧雲은 "이 句節은 곧 輿地誌다"라고 評했다. 中國의 五嶽은 다 崑崙山에서 뻗어 나왔고, 黃河는 星宿海에서 發源했다 해서 그렇게 말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敎授(中國文學)

(1) 洪萬宗이 撰集한 詩話叢林에 들어 있음. 여기서는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 所藏 手鈔本에 따름.

한 것이다. 그의 題潤州慈和寺詩의 한 聯에

그림 그려져 있는 號角 소리 가운데
아침 저녁 물결 일고
靑山 그림자 속에
古今人 오간다.

라고 하였고, 學士 朴仁範(fl. 898)[2]의 題涇州龍朔寺詩에는

등불 흔들려 반딧불 같은 빛
새나 다닐 험한 길 밝혀주고
층대 돌리어 무지개 같은 그림자
문같이 곧추선 바위에 떨어져 있다.

라고 하였고, 參政 朴寅亮(d. 1096)[3]의 題泗川龜山寺詩에는

문 앞의 나그네 배 노젓기
큰 물결 속에 급하고
대나무 밑에는 중의 바둑
대낮에 한가하다.

라 했다. 우리 동쪽 나라에서 詩로써 中國에 이름 떨치기는 이 세 사람부터 시작되었다.

三韓, 自夏時始通中國, 而文獻蔑蔑无聞. 隋唐以來, 方有作者. 如乙支之貽詩隋將, 羅王之獻頌唐帝, 雖在簡册, 未免寂寥. 至崔致遠入唐登第, 以文章名, 動海內. 有詩一聯曰: "崑崙東走五山碧, 星宿北流一水黃" 同年顧雲曰: "此句即一輿地誌也." 盖中國之五嶽, 皆祖於崑崙山, 黃河發源於星宿海, 故云. 其題潤州慈和寺詩一句云: "畵角聲中朝暮浪, 靑山影裏古今人." 學士朴仁範題涇州龍朔寺詩云: "燈撼螢光明鳥道, 梯回虹影落岩扃." 參政寅亮題泗川龜山寺詩

(2) 新羅의 眞聖女王 前後에 활약한 文臣, 唐에 들어가 賓貢科에 及第. 三國史記 46卷 參照.
(3) 高麗 文宗 때의 文臣, 宋나라에 使臣으로 다녀 왔음. 高麗史 卷94에 本傳이 있음.

云："門前客棹洪波急, 竹下僧棋白日閑." 我東之以詩鳴於中國, 自三子始.

이것은 엄격한 歷史的인 事實을 적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적어도 高麗 後半期의 漢詩大家였던 李奎報가 그 당시의 知識人들 사이에 普遍的으로 認識되어 있던 일을 적은 것임에는 틀림 없다. 우리 땅에 漢詩가 전해져 그것이 學習 欣賞된 時期는 상당히 일렀을 것으로 추측되나 知識人들이 漢詩를 짓는 것이 流行하기는 대체로 崔致遠의 時代에서 별로 멀리 遡及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고, 漢詩를 짓는 것이 知識人이 되는 要件이 되다싶이 하여 여러 사람들에 의해 많은 漢詩가 지어지게 된 것은 아무래도 高麗 光宗 9年(958) 雙冀(956 入國)가 設科를 建議해서 詩賦頌策으로 取士해서부터 本格的으로 盛行하게 되었을 것이다. 高麗史 卷93 雙冀傳에도 科擧를 施行해서부터 文風이 興盛해졌다고 하였고 崔滋(1188—1260)의 補閑集 自序에 顯宗 5年 (즉 光宗 9年)에 처음 科擧를 시작하여 賢良文學之士를 뽑아 玄鶴이 來儀했다고 말한 것 등을 보아도 이점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후 一二百年 동안에 詩作으로 頭角을 나타내는 人物이 輩出하여 詩文集이 續出하기에 이르렀다. 補閑集 自序에 略擧된 文名을 드러낸 人物만해도 다음과 같이 그 수효가 적지 않다.

王融 趙翼 徐熙 金策 李夢游 柳邦憲 鄭倍傑 高凝
崔冲 崔惟善 李靖恭 崔奭 李靈幹 鄭惟產 金行瓊 盧坦
朴寅亮 崔思齊 崔思諒 李顥 金良鑑 魏繼廷 林元通 黃瑩
鄭文 金緣 金商祐 金富軾 權適 高唐愈 金富轍 金富佾
洪瓘 印份 崔允儀 劉羲 鄭知常 蔡寶文 朴浩 朴椿齡
林宗庇 芮樂同 崔誠 金精父子 吳世文 吳世才 李仁老 兪升旦
金仁鏡 李奎報 李公老 金克己 金君綏 李充甫 陳澕 劉冲基
李百順 咸淳 林椿 尹于一 孫得之 安淳之

李仁老(1152~1220) 李奎報 등의 時代에 와서는 諸家의 詩를 評論 또는 談說하는 것이 상당히 활발하게 시도되었던 것이다. 지금 전해지는 당시의 漢詩의 評論 내지 詩話는 李仁老의 破閑集[4]이 가장 이르고 가장 完整한 形態를 갖춘 것이다. 말하자면 당시는 이미 李仁老의 破閑集 같은 純粹한 詩話集이 나올 정도로 漢詩가 이땅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李仁老의 破閑集은 最初에 나온 純粹하고 完整한 詩話集이었기는 하나 다루어진 內容이 個人的인 色彩가 지나치게 짙어 偏頗的인 흠이 없지 않고 따라서 당시 詩話에 다루어질만한 詩나 詩人이 많이 疏外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五·七言의 律絶만을 다룬 破閑集에 나타난 評詩의 趣向은 才致 내지 技巧의 特異性에 기울어지고 自誇癖이 露出되어 있어 詩의 風趣나 당시 詩壇의 總體的인 風貌를 傳達하는 구실을 충분하게 해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시 一部 知識層에서는 破閑集에 包括되지 못한 詩 내지 詩人이 詩話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觀念을 갖게 되었고 詩 내지 詩人을 다루는 態度도 破閑集과는 좀 달라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崔滋의 補閑集[5]은 破閑集이 나온 이후의 그러한 要求를 充足시키자는 것이 그 出刊의 主要한 目的의 하나였다고 하겠다. 補閑集 自序에 "學士 李仁老가 그 대략을 모아서 책으로 엮어 破閑이라고 이름지었다. 晋陽公이 그 책에 다루어진 것이 광범하지 않다고 나에게 그것을 續補하라고 命했다."(李學士仁老, 略集成編, 命曰破閑. 晋陽公以其書未廣, 命予續補.)라고 한 것도 這間의 消息을 말한 것이라 하겠다. 補閑集도 律絶을 다루는데 그치고 있으나, 洗鍊된 詩의 評說이 적지 아니 들어 있고, 詩論으로 看做할 수

(4) 破閑集은 上中下 3卷, 奎章閣 所藏 木版本, 朝鮮古書刊行會의 活字本 등이 있음.

(5) 補閑集은 역시 上中下 3卷, 奎章閣 所藏 版本, 朝鮮古書刊行會의 活字本 등이 있음.

있는 條例도 여러가지 提示되어 있다. 여기서는 筆者의 韓國詩話硏究의 一端으로 補閑集을 中心으로 하여 崔滋와 그의 詩評을 몇가지 角度에서 考察하여 보기로 하겠다.

## 二. 崔滋와 補閑集

高麗史 卷102에 崔滋의 本傳이 있다. 그는 高麗時代의 代表的인 儒者 崔冲(984—1068)의 後孫으로, 字는 樹德, 初名은 宗裕, 又名 安, 康宗朝(1212—1213)에 科擧에 及第하여 尙州司錄을 거쳐 國學學諭에 入補되었다. 그후 그는 官運이 否塞해서 10餘年 동안 國學學諭로 머물러 있었다. 그 經緯를 살펴보면 이러하다. 당시의 執政者였던 崔瑀(d. 1249)가 官員의 人事를 處理하기 위해 朝庭의 선비를 네가지 等級으로 品第해서 그것을 자기 손으로 屛風에다 직접 써 놓고 그것에 따라 人事問題를 다뤘던 것이다. 그 等級을 매기는 標準을 詩文과 行政의 能力에 두고, 두가지 能力을 兼備한 자를 上, 詩文은 잘하나 行政力이 부실한 자를 그 다음, 行政力은 있으나 詩文이 시원치 않은 자를 또 그 다음, 詩文과 行政이 다 부실한 자를 下로 잡았던 것이다. 崔滋는 天品이 淳訥해서 자기의 才能을 나타내는 것을 能事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實力이 認定받을 機會를 갖지 못해 崔瑀의 品第에서는 下의 자리에 놓여져 初年의 官運이 否塞함을 면치 못했다.

그런데 崔滋는 당시 崔瑀의 庇護下에서 文翰을 맡고 있던 李奎報의 強力한 推薦을 받아 그의 實力을 나타내 보일 機會를 갖게 되었다. 本傳에 의하면 滋가 虞美人草歌와 水精盃詩를 지은 것을 李奎報가 보고 그의 文才가 대단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補閑集에는 李奎報가 同輩나 後進을 推奬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는 것을 다룬 記事가 數則 들어 있는데 그 중에 이 虞美人草歌와 水精盃詩에 관한 다음과 같은 비교적

詳細한 記事가 들어 있다.

及第 金台臣이 許彦國의 虞美人草歌를 和作하여 文順公에게 바쳤다. 그때 史館 李允補가 가서 公을 찾아 보았는데 公이 그것을 내 보였다. 史館이 그 詩를 쓴 두루마리를 빌려 왔는데 내가 史館의 집에 가서 그 詩를 보고 곧 일곱 首를 和作해 드렸다. 史館이 公에게(내가 和作한 일곱 首의 詩를) 보였는데, 公이 잘됐다고 하고 특별히 긴 편지를 써서 翰林 河千旦을 시켜 편지를 보내와 이르기를, "이 詩는 韻이 強해서 무릇 詩를 짓는 사람이면 和作하는데 뭇적 애를 먹소. 그대가 지은 것을 보니 文辭와 意境이 絶妙해서 李白이나 杜甫가 짓는다 하더라도 더 보탤 것이 없을 정도요."라고 했다. 또 長篇의 詩를 보냈더니 아주 지나치게 칭찬하였고, 내가 謝意를 表明하러 찾아 갔더니 신발을 꺼꾸로 끌고나와 맞아 주고 굳이 만류하여 술을 내놓고 詩의 原稿를 다 내보이면서 말하기를, "알게 된 것이 늦은 것을 깊이 부끄럽게 생각하오. 전에 全履之가 詩를 잘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認識하지 못했고 나만이 그것을 알았었소. 지금 그대의 容貌를 보고서는 뛰어난 재주가 있다는 것을 모르겠으니 그대는 참으로 德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오."라고 했다. 그후 數年이 지나 公이 國子祭酒를 除授했는데 그때 나는 國子學諭로 있었다. 어느날 公이 公事로 廳舍에 나와 앉아서(나에게) 말하기를, "전날 庾諫議宅에서 酒宴을 가졌을 때 (내가) 붓을 달려 水精盃詞를 짓자 사람들이 다 그것에 和作해 주었고 그대만이 和作하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이오?"라고 했다. 나는 놀라고 황송해서 그 命令을 받들어 곧 일곱 首를 和作하여 바쳤더니 公은 칭찬하고 감탄하여 마지 않았고 그것을 誥院에 내보이고 말하기를, "이 詩는 지금 세상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及第金台臣, 和許彦國虞美人草歌, 爲贄於文順. 時李史館允甫往謁公, 公出示之. 史館借其卷子來, 予於史館家見其詩, 即和進七首, 史館傳示公. 公許可,

特裁長書, 遣翰林何千旦賚書報云 "此詩韻强, 凡作者頗艱於和. 觀君之作, 辭意絕妙, 雖李杜作之, 無以復加也." 又投長篇, 褒奬大過. 及予謝進, 倒屣出迎, 固留開飲, 盡出文藁示之曰 "深愧相知之晚也. 昔全履之能文, 時人不識, 我獨知之. 今見君貌, 不知有逸才, 是眞隱德人也." 後數年除國子祭酒, 予爲學諭. 一日因公事坐廳事曰 "日者宴庾諫議宅, 走筆賦水精杯詞, 人皆見和, 君獨不和, 何也?" 予驚惶承命, 即和成七首奉呈, 公稱歎不已, 傳示於誥院曰 "此詩非今世人作也."(卷中)

이러한 일이 있은 후 한번은 崔瑀가 李奎報에게 文翰을 맡아 볼 後繼者가 누구인가를 물은 일이 있었다. 李奎報는 자기의 後繼者로 崔滋를 첫째로 내세우고 金坵(1211—1278)를 그 다음으로 꼽았다. 崔瑀는 滋의 文才를 試驗해 보기 위해 당시 文名이 있던 李需(未詳) 李百順(d. 1237) 河千旦(d. 1259) 李咸(未詳) 任景肅(1251 致仕) 등과 함께 書表를 製作시켜 가지고 李奎報를 시켜 等級을 매기게 했다. 十回를 試驗했는데 滋가 다섯 차례 狀元을 하고 다섯 차례는 次席을 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 滋의 吏才를 試驗해 보기 위해 給田都監給事를 비롯하여 몇군데의 地方官을 시켰는데 治績이 顯著해서 급기야는 滋를 重用하게 되었다. 本傳에 의하면 그후 國子大司成에서 시작하여 中書平章事 加守太師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判吏部事에까지 이르렀다. 또 本傳에 의하면 당시 蒙古兵이 侵入하여 江都에 가 있을 때 三品 이상의 官員에게 그 對策을 물었는데 滋는 당시 樞密使로 있던 金寶鼎과 함께, 蒙古에게 出降하는 것이 善策임을 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滋는, 당시 橫暴를 극한 權臣이며 뒤에 誅戮된 바 있는 金俊(d. 1268)의 여러 아들들을 자기집에 招待해서 酒宴을 베풀은 일이 있다. 이 일로 滋가 權臣에 阿附한다 하여 일반의 批判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후 滋는 致仕하고 물러나 東山叟라 自號하고 元宗元年(1260) 73歲에 卒했다. 諡는 文淸.

本傳에 의하면 崔滋의 著述로 家集 10卷과 續破閑集 3卷이 세상에 전해졌다. 續破閑集 3卷은 바로 우리가 考究하려고 하는 上中下 3卷으

로 된 補閑集이다. 補閑集 自序의 紀年은 甲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高麗 高宗 41年(1254)에 該當하고 滋의 卒前 7年 그가 65歲 되던 해다. 自序에 "晋陽公以其書未廣, 命予續補."라고 한 것으로 보아 崔滋는 晋陽侯 崔瑀가 죽기 전에 補閑集의 執筆을 시작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崔瑀는 高宗 36年(1249)에 죽었다. 補閑集의 出刊은 瑀의 아들 沆(d. 1257)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土臺로 해서 생각하여 보면, 이 補閑集은 崔滋의 晩年에 編成된 것이고 또 自序를 쓴 65歲 때에 적지아니 調節이 加해졌으리라는 것을 推測할 수 있게 된다. 晩年에 쓴 것이므로 자연 상당한 先入見의 支配를 면치 못했으리라고 짐작이 가기는 하나 또 그의 詩觀이 確立된 입장에서 編成된 것이므로 그의 晩年에 썼다는 데에 좋은 점이 없지도 않은 것이다.

본래 이 崔滋의 補閑集은 李仁老의 破閑集을 續補한다는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다. 破閑集은 당시 文集을 낸 이른바 名賢들의 詩를 批評 내지 擧論하는데 目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湮沒되어 알려지지 않을 그 밖의 名章秀句를 다루는데 주로 힘이 주어졌고 또 다루는 詩도 五·七言 律絶에 局限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崔滋도 대체로 文集으로 編成된 것과 五·七言 律絶 이외의 것은 다루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삼고 補閑集 編成에 臨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補閑集 卷中에서 다음과 같이 몇몇 先輩의 詩를 略評하고 자기의 태도를 밝히기에 이른 것이다.

지금의 詩人들을 評해보면 이러하다. 文安公 兪升旦의 詩는 말이 세차고 意境이 淳美하고 故事를 쓰는 것이 正確 簡明하다. 貞肅公 金仁鏡은 무릇 글자를 쓰는 데는 반드시 淸新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 편의 詩를 내 놓을 때마다 번번이 時俗을 놀래키고는 한다. 文順公 李奎報의 詩는 氣象이 壯大하고 修辭가 씩씩하고 創意가 新奇하다. 學士 李仁老의 詩는 말이 다 品格이 두드러지고 故事의 運用이 귀신 같아서

옛 사람들이 쓰던 것을 踏襲한 데가 있다 하더라도 雕琢하고 鍛鍊하는 技巧가 그들보다 뛰어난다. 承制 李公老의 詩는 修辭와 用語가 遒勁美麗하고 더욱이 말을 풀어서 對를 만들어 내기를 잘한다. 翰林 金克己의 詩는 修辭를 엮어나가는 것이 맑고 폭이 넓으며 말이 많은 것이 그 豐滿함을 더한다. 諫議 金君綏의 詩는 修辭의 뜻이 부드럽고 여유가 있다. 先生 吳世材와 處士 安淳之의 詩는 富贍하고 渾厚하다. 史館 李允甫와 先生 林椿의 詩는 簡明 古雅하고 精密 雋秀하다. 補闕 陳澕의 詩는 맑고 웅장하며 華麗하고 變態가 百出한다. 이들은 다 한때의 巨匠들이다. 그들이 손을 대는 妙理를 살필려면 반드시 큰 作品에서 해야지 짧은 作品으로는 大家의 工拙을 짓기에 不足하다. 그러나 이 책은 단지 몇 卷 뿐이고 記載한 것이 要點의 槪略이므로 오직 그들의 絶句를 실었을 뿐이고 다른 詩가 여러 首가 되지 않고 詩家의 各體를 標出하였을 따름이다. 거기다 그들의 長篇巨製는 각기 本集에 실려 있으니 여기에는 收錄하지 않는다.

今之詩人評曰：俞文安公升旦，語勁意淳，用事精簡；金貞肅公仁鏡，凡使字必欲淸新，故每出一篇，動驚時俗；李文順公奎報，氣壯辭雄，創意新奇；李學士仁老，言皆格勝，使事如神，雖有蹈古哇畛處，琢鍊之巧，靑於藍也；李承制公老，辭語遒麗，尤長於演語對偶之文．金翰林克己，屬辭淸曠，言多益富；金諫議君綏，辭旨和裕；吳先生世材，安處士淳之，富贍渾厚；李史館允甫，林先生椿，簡古精雋；陳補闕澕，淸雄華靡，變態百出．此皆一時宗匠也．欲觀其下手之妙，必於巨構，其短章絕句，不足爲大手之工拙也．然此書止數卷，所載要略，故唯載其絕句，詩不多首，標諸家各體而已．況其長篇巨韻，各載於本集，此不收錄．

崔滋는 補閑集에서 간단하나마 詩를 많이 論評하였다. 그리한 論評에는 詩의 風格을 비교적 자주 다루고 風格을 나타내는 用語 내지 表現을 여러가지로 提示했다. 특히 卷下 第1則에서는 21種의 風格을 設定하고 그 하나하나의 風格을 나타내는 最適例로 七言律詩의 對句 1聯 내

지 數聯씩을 諸家詩 중에서 摘出 提示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同第11則에서는 詩의 風格을 三大分해서 그 優劣을 말하고 評詩의 要諦에 言及하고 있다. 이러한 風格의 論議는 縹緲한 느낌을 자아내기는 하나 그래도 그러한 試圖가 簡略한 形式으로나마 高麗時代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注意를 기울여서 考察해 볼 충분한 價値를 지니고 있다.

## 三. 李奎報評

李奎報는 崔滋를 높이 評價해 준 知己인 동시에 그를 자신의 첫째가는 後繼者로까지 推薦해 준 先輩이며 上司였다. 반드시 李奎報의 知己之恩에 報答하고자 하는 心思에서 였다고만은 할 수 없으나 하여튼 崔滋는 補閑集에서 李奎報의 詩를 偏頗性을 認知하게 할 정도로, 頻繁하게 다루고 또 번번이 李奎報의 人物과 그 詩를 尊崇하는 뜻을 表明하였다. 李奎報는 한 때 文翰을 맡았던 人物이고 또 詩人으로서도 大家로 불리우기에 별로 遜色이 없는 特異한 存在였으므로, 崔滋의 李奎報觀 내지는 李奎報 詩評을 理解하는 方便으로서 뿐 아니라 李奎報의 詩 自體를 理解하기 위해서도 補閑集에 보이는 崔滋의 李奎報 評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앞에서 引用한 記事에서 崔滋는 李奎報 詩의 特性을 "氣壯辭雄, 創意新奇"로 要約하고 있는데, 古人에 比할 때는 唐의 李白(701—762)과 白居易(772—846)를 한데 묶은 데 맞갈 정도로 말하고 있다. 卷中에서 崔滋는 먼저 다음과 같은 安淳之가 李奎報 詩를 評한 말을 引用했다.

棄菴居士 安淳之가……文順公의 文藁를 보고서 小序를 지었는데 그 要點은 이러하다 : 말을 꺼내면 그것이 바로 詩가 되어 頃刻之間에 百篇토록이나 많이 지어내고는 한다. (그의 詩才는 實로) 하늘이 풀어 내

놓고 神이 내려준 것으로 (그가 지어낸 詩는) 清新하고 俊逸하다. 사람들이 公을 太白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事實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내 意見을 말한다면 그분이 취해서 읊조릴 때에는 미친 바다가 動盪하는 것 같고 비단 같은 詩의 생리가 찬란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類似한 表現이라고 하겠다. 格律이 嚴整하고 對句가 逼眞하고 切實함에 이르러서는 怱怱하고 틈이 없는 가운데에서 더욱 그 實力이 나타나니 이점은 太白보다 더 나은 것 같다.

棄菴居士安淳之……見文順公文藁, 作小序, 略云"發言成章, 頃刻百篇. 天縱神授, 清新俊逸. 人以公爲太白, 盖實錄. 然以僕言之, 其醉吟之際, 狂海蕩然, 錦腸爛然, 即已相類. 至於律格嚴整, 對偶眞切, 於怱怱不暇中, 尤見功夫, 似過之也."

崔滋는 이어 安淳之와 자신의 白居易詩評을 展開시킨 후에 結論的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文順公의 詩를 보면 비록 氣韻이 뛰어난 것이 太白과 맞간다고는 하나 그것이 道德을 밝히고 風諭의 뜻을 느러놓는 점은 大略 白公과 符合하니 天才와 人才를 다 갖췄다고 하겠다.

今觀文順公詩, 雖氣韻逸越, 侔於太白, 其明道德, 陳風諭, 略與白公契合, 可謂天才人才備矣.

여기에 말한 天才는 李白에 人材는 白居易에 각각 견줘서 말한 것이다. 李白으로 指目한 것만 해도 이미 대단한데 다시 白居易를 보탰으니 崔滋는 李奎報를 推仰하는 뜻을 충분히 나타냈다고 하겠다. 그런데 李奎報의 自述을 살펴 보면, 白雲居士傳에서 "豈古淵明之徒歟"라 하여 자신을 陶淵明(365? -427)에 견주어 볼려고 하였고 또 그의 各體의 詩에 陶淵明을 기리는 뜻을 發揮한 곳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그가 李白에

自比한 것은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東國李相國集 卷三에 "次韻, 尹國博威見予詩文, 以詩寄之, 其序目予爲謫仙, 予拒之"라는 長題로 된 다음과 같은 絶句가 한 首 실려 있는 것이 보인다.

나를 하늘의 신선으로 指目하는 건
한갓 귀를 위로하는 것일 뿐
억지로 嫫母[6]를 화장시킨들
어찌 고와지겠는가
사람 만나면 번번이 꼭
다 그렇다고 할터이니
많기도 하외다그려
李謫仙[7]이

目我天仙徒慰耳,
勉粧嫫母豈成妍.
逢人輒必言皆爾,
不亦多哉李謫仙.

이 絶句로는 自謙하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도 보이고 한편 尹威가 다른 사람들의 詩를 보고도 李白 같다고 말해준 事例가 많았던 것을 嫌惡한 것으로도 보인다. 하여간 李奎報는 生前에도 一部 人士들에 의해 李白으로 指目되었던 일이 있었던 것만은 이 絶句로도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李奎報가 晩年에 자기의 病上詩酒癖을 白居易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自慰한 다음과 같은 글이 그의 白雲小說에 보인다.

나는 본래 詩를 좋아하는데, 前生의 빚이라고는 하지만, 病中에는 더욱 酷愛해서 그 정도가 보통 때보다 倍加하니 그 까닭을 모르겠다. 흥이 나고 累物에 觸發될 때마다 吟詠하지 않을 적이 없고 그렇게 하지

(6) 嫫母(모모)는 傳說上의 醜婦, 黃帝의 第四妃라고 함.
(7) 謫仙은 李白의 別稱.

않으려 해도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 역시 病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詩癖篇을 써서 心中을 나타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체로 스스로를 술퍼한 內容이다. 또 食事는 늘 두 서너 숟갈을 드는데 불과하고 술만 마실 뿐이어서 늘 탈이 났다고 생각했다. 白樂天後集의 老境의 作을 보니 그 大部分이 病中에 지은 것들이고 술 드는 것 역시 그러했다. 그 중의 한편에 대략 이렇게 나온다. "나도 별에서 宿命을 보니, 여러 前生의 負債는 詩歌다. 그렇지 않다면야 왜 미친 듯 吟詠하며, 병든 후가 병들기 전보다 많단 말인가?" 酬夢得詩에는 "가물가물 무명 이불 밑에서, 病中에 취해 잠결에 和作한다."라고 했고, 服雲母散詩에는 "藥이 삭고 느직해서 서너 술 든다."했고 그 나머지도 역시 이런 따위들이다. 나는 그제서야 꽤 自慰하게 되어 "나 뿐이 아니고 옛날 사람들도 그러했다. 이런 것은 다 저승의 빚의 所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白公은 病暇가 100日이 차자 벼슬을 내놓았다. 나는 某日에 벼슬에서 물러나게 될 때까지 病暇가 110日이 된다. 두 사람의 生涯가 期約없이 비슷함이 이러하다. 다만 나에게 없는 것은 樊素와 少蠻 뿐이다. 그러나 이 두 妾 역시 公의 나이 예순 여덟에 다 쫓겨 났은 즉 그들이 이 時期에 무슨 상관이 있었겠는가? 아아, 才德으로서의 名望이 白公만은 훨씬 못하지만, 그의 老境 病中의 일은 왕왕 나와 비슷한 점이 많다. 그래서 그가 지은 病中의 十五首에 和作해서 這間의 事情을 披瀝했다.

余本嗜詩, 雖宿負也, 至病中尤酷好, 倍於平日, 亦不知所以. 每寓興觸物, 无日不吟, 欲罷不得. 因謂曰此亦病也. 曾著詩癖篇以見志, 盖自傷也. 又每食不過數匙, 唯飮酒而已. 常以此爲患. 及見白樂天後集之老境所著, 則多是病中所作, 飮酒亦然. 其一詩略云 "我亦定中觀宿命, 多生債負是歌詩. 不然何故狂吟咏, 病後多於未病時." 酬夢得詩云 "昏昏布衾底, 病醉睡相和." 服雲母散詩云 "藥消日晏三匙食," 其餘亦倣此. 余然後頗自寬之, 曰 "非獨余也, 古人亦爾. 此皆宿負所致, 无可奈何矣." 白公病暇, 滿一百日解綬. 余於某日將乞退, 計病暇一百有十日, 其不期相類如此. 但所欠者, 樊素少蠻耳. 然二妾亦於公年六十

八皆見放, 則何與於此時哉. 噫, 才名德望, 雖不及白公遠矣, 其於老境病中之事, 往往多有類余者. 因和中十五首, 以紓其情.

이 李奎報 晩年의 自述을 보면 그가 白居易에 自比하고 그것으로 自慰했음이 뚜렷이 드러나 있다. 이 밖에도 李奎報가 晩年에 白詩에 次和한 篇什이 상당이 많고 "書白樂天集後"(8)라는 글도 써서 역시 老境에 白詩를 愛讀하는 뜻을 披瀝하고 아울러 白詩의 좋은 점을 辯論하기도 했다. 崔滋는 이러한 李奎報 晩年의 心情을 理解하고 李奎報의 詩를 李白과 白居易의 그것의 特長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 하겠다.

崔滋는 특히 李奎報가 이같은 남의 追從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의 詩文大家였음에도 남에게 謙下할 수 있었다는 점을 되풀이 말하고 있다. 다음에 卷中에 나오는 한 記事를 例로 들어두기로 한다.

文順公의 文集이 이미 세상에 나왔다. 그 詩文을 보면 해와 달 같아서 칭찬할 말이 없을 정도다. 近代의 律詩는 5字나 7字 가운데 聲韻과 對句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위로 따져가며 穿鑿하고 雕琢해서 그 規律에 맞춰야 한다. 비록 굉장한 人才와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말을 해내서 奧妙한 속을 드러 낼 수 없기 때문에 으레 氣骨이 없기 마련이다. 公은 어릴 때부터 붓을 달리면 다 새로운 意境을 創案해 내고, 文辭를 토해 내는 것이 많아 질수록 기운을 달리게 하는 것이 더욱 웅장해져서 비록 聲律의 拘束 가운데 들어가서 細密하게 雕琢하고 巧妙하게 얽어나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豪氣있게 마음대로 굴고 奇妙하게 높이 뛰어난다. 그러나 公을 天賦의 才性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즉) 對句와 聲律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 대체로 古調에 의한 長篇을 가지고 強韻과 險題 가운데서 뜻대로 奔放하여 단숨에 100장의 종이를 쓸어내는데도 다 옛 사람의 자취를 뒤따라 이어가지

(8) 東國李相國集, 後集 卷11.

않고 우뚝하니 自然스럽게 이룩해 놓는다. 그런데도 (公은) 남에게 謙下할 수 있어 무릇 한가지 좋은 일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칭찬하여 자기보다 더 잘한 것 같이 한다. (公이) 弱冠 때 麴秀才傳을 지었는데 史館 李允甫가 科擧에 갓 及第했을 때 그것을 본 받아서 역시 無腸公子傳을 지었다. 公이 그것을 보고는 심히 기뻐하여 늘 詞林에서 찬양하여 말하기를 "근자에 글 잘하는 李允甫를 얻었는데 참으로 좋은 史官 감이다"라고 했다. 또 文安公과 함께 誥院에 있을 때 晋陽公이 普濟 廣明 西普通 세 절에서 禪會를 차렸다. 禪會가 끝나자 (晋陽)公은 두 公과 尹直講을 한군데로 청해다가 세 會榜을 만들어 글을 짓게 했다. 兪는 廣明榜을 맡아서 글을 지었다. 당시 사람들은 兪榜의 것이 (文順)公의 것보다 떨어진다고 하였는데 (文順)公이 그것을 보고서는 稱歎하고 가는 곳마다 讚揚해서 말하기를, "이번에 지은 것은 내가 兪君의 것보다 훨씬 못하다."라고 했다. 公이 翰林이 되었을 때 直院 孫得之가 公의 早茶長篇 5首를 和作했는데 公이 驚歎하여 말하기를, "여지껏 孫이 이러한 높은 재주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했다. 公은 正直 公明한 天性을 타고 났다. 그가 좋은 것을 讚揚하고 나쁜 것을 꾸짖는 것을 보면 그것은 天性에서 우러난 것이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文人은 서로 깔본다."라고 하였지마는 그 말은 지더린 아이들의 말일 따름이다.

文順公家集, 已行於世. 觀其詩文, 如日月不足譽. 近代律詩, 於五七字中, 有聲韻對偶, 故必須俯仰穿琢, 以應其律. 雖宏材偉器, 不得肆意放言, 披露妙蘊, 故例無氣骨. 公自妙齡, 走筆皆創出新意, 吐辭漸多, 騁氣益壯, 雖入於聲律繩墨中, 細琢巧構, 猶豪肆奇崒. 然以公爲天才俊邁者, 非謂對律. 蓋以古調長篇, 强韻險題中, 縱意奔放, 一掃百紙, 皆不踐襲古人, 卓然天成也. 猶能謙下於人, 凡有一善, 必褒奬, 若出己右. 弱冠時作麴秀才傳, 李史館允甫, 初登第時效之, 亦作無腸公子傳. 公見之而甚善, 每唱於詞林間曰 "近得能文者李允甫, 眞良史才也." 又與文安公同在誥院時, 晋陽公設禪會於普濟, 廣明, 西普通三寺. 及罷會, 公請二公及尹直講于一, 作三會枋, 俞作廣明枋. 時人以俞枋下於公, 而公見之稱歎, 所至揚言曰 "今此作, 吾不及俞君遠矣." 公爲翰林時, 孫直院得之,

和公早茶長篇五首, 公驚嘆曰 "從來未識孫有如此高才也." "公資正直公明. 觀其讚善疾惡, 出自天性. 古人云 "詞人相輕," 蓋凡庸兒輩言之耳.

그런데 이 記事에서 崔滋는 李奎報가 詩를 짓는데 있어서 "創出新意"하고 "縱意奔放"하는 점을 特長으로 내세우고 있다. "縱意奔放"하는 것은 氣質과 才性의 所致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創出新意"하는 것은 李奎報 당시에 이미 自他間에 問題가 되어 論難되고 있었다. 당시 詩壇에는 北宋의 蘇軾(1036—1101)과 黃庭堅(1045—1105)의 詩를 模倣하는 氣風이 流行했고 특히 李仁老 등을 中心으로 한 一派에서 그것이 심했다. 그래서 崔滋도 補閑集 卷中에서 李仁老와 李奎報를 對比시켜 論辯을 시도한 바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優劣은 따지지 않았으나 東坡를 내걸고 덤벼대는 당시의 新進들을 상당히 冷酷하게 批判했다. 李奎報의 創出新意하는 作詩態度는 李奎報의 在世時에도 상당히 問題가 되어 論難되었던 것 같아서 李奎報 자신이 作詩에 臨해서 "創出新意"하는 자기의 입장을 "答全履之論文書"(9)에서 퍽 昭詳하게 解明하고 있다. 全履之가 李奎報에게 낸 書札은 지금으로서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李奎報의 答書를 보면 全履之가 그를 李白과 杜甫에 비기고 당시 東坡를 내세우고 東坡詩의 詩語와 詩意를 剽竊하면서 자기 詩가 優秀하다고 생각하는 部類가 있는 것을 排擊하였고, 李奎報가 古人을 踏襲하지 않고 造語가 다 新意에서 나온 것을 굉장하게 讚揚하였음을 알게 된다. 李奎報는 答書에서 全履之의 그러한 말이 過當한 讚揚이라고 謙遜하면서도 語意를 創出한다는 것은 事實이라고 自認하였고, 또 그것은 결코 古人과 다르게 굴기 위해서가 아니고 不得已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說明을 느러 놓았다. 李奎報의 辯明은 이러하다. 즉 자기는 어릴 때부터 放浪無檢했고 讀書에 있어서도 그리 精密하지 못해서 六經과 子史의 글도 涉獵하였을 따름이고 그 根源을 徹底하게 探하기에까지는

(9) 同 卷26.

이르지 못했으므로 諸家의 章句는 더우기 깊이 파고들어 갈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글에 熟達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 體나 본 받았지 그 말을 훔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테면 東坡詩를 본받아서 그 極致에 이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東坡가 아무런 損傷도 입을 까닭이 없으니까, 非難을 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辯明은 다소 自謙을 곁드린 客談에 가까운 말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의 詩文을 通讀해 보면 그는 결코 六經 子史나 諸家의 章句를 凡然하게 涉獵하는데 그치고 있지는 않다. 李奎報가 意識的으로 古人을 踏襲하지 않고 語意를 創出한 것이 不得已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 말은 단지 末端的인 微細한 理由가 될 수 있을 뿐이고 그의 本意인즉 古人을 追從하지 않고 獨自的으로 一家를 이루려는데 있었던 것이다. 당시 各家의 詩文集이 많이 나왔으나 後學에 裨益되는 바 없이 古人을 踏襲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은 아무런 意義가 없는 踏步에 불과하고 紙墨을 浪費할 뿐이라고 判斷하였던 것이다. 다만 옛 詩人은 造意가 특히 新穎하면서도 詩語가 圓熟한 데 자기는 詩語가 圓熟하지 못한 것이 흠이라고 그는 自責하고 있다. 자기의 詩語가 圓熟하지 못하게 된 理由로 李奎報는 옛 詩人들은 經史百家에 보이는 古聖賢의 說을 力讀하여 마음에 熏鍊시키고 입에 熟習시켜서 吟詠에 臨해서 그것을 自在하게 活用할 수 있었는데 比해 자기는 그렇지 못했고, 옛 詩人은 詩意만을 創造했는데 자기는 詩意와 함께 詩語까지 意識的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生澁함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要컨대 李奎報는 時流에 휩쓸리지 않고 中國의 歷代大家와 같은 詩人이 되기를 指向해서 "創出新意"하는데 意識的으로 힘을 기울인 것이라 하겠다. 新語를 지어낸다는 것은 결코 從前에 없었던 말을 새로 만들어 낸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古人의 常套語를 피하고 자기가 捕捉한 意境을 適切하게 드러낼 말을 자기나름으로 찾아쓰는 일을 두고 한 말이다. 古人을 踏襲하지 않는다는 것도 결국은 그

러한 面을 말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北宋初期에 文化革新을 領導한 人物인 歐陽修(1007—1072)의 詩에 대한 南宋詩話家들의 評說이다. 嚴羽(fl. 1200)의 滄浪詩話 胡仔(fl. 1147)의 苕溪漁隱叢話 등에는 歐陽修가 詩를 짓는데 있어 胸臆에서 우러 나기를 원하지 前人을 踏襲하려 들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그 詩才가 뛰어나기 때문에 無理한 자취가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10]. 우리는 李奎報가 意識的으로 歐陽修의 이러한 作詩態度를 받아 드렸다고 斷定할 根據는 發見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白雲小說에 歐陽修의 11世孫이라고 하는 歐陽伯虎가 高麗에 오자 그에게 詩를 보내 歐陽修를 欽慕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11].

崔滋는 역시 補閑集 卷中에서 林椿 李仁老 李奎報 3人의 詩를 東坡詩를 標準으로 하여 優劣을 論하고 있다. 그 記事는 다음과 같다.

林椿先生이 李眉叟[12]에게 보낸 글에 이르기를, "나와 당신은 東坡를 읽지 않았었지마는 왕왕 句法이 이미 비슷했읍니다. 마음 속에 터득한 것이 暗暗裡에 서로 合致되었던 것이 아니겠읍니까."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眉叟의 詩를 살펴보니 間或 七言詩 한 句나 五言詩 한 句가 東坡集에서 나온 것이 있다. 文順公의 詩를 살펴 보면 四五字도 東坡의 말을 빼앗아 온 것이 없는데 그 豪邁한 氣象과 豐滿한 體는 그대로 東坡의 그것들과 吻合한다. 세상에서는 林椿의 文章은 옛사람의 文體가 살려져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文章을 살펴 보면 다 옛 사람의 말 들을 채운 것으로 間或 數十字까지도 엮어서 자기 말로 삼고 있다.

(10) 苕溪漁隱詩話; 歐公作詩, 蓋欲自出胷臆, 不肯蹈襲前人; 亦其才高, 故不見牽强之迹耳.

(11) 歐陽伯虎에게 보낸 詩 贈歐陽二十九에 "可喜醉翁流遠派(自註: 自言永叔十一世孫), 尙敎吾輩飽香名."이라 一聯이 있음. 後集 卷3.

(12) 眉叟는 李仁老의 字.

文體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 달을 빼앗은 것이다.

林先生椿贈李眉叟書云"僕與吾子, 雖未讀東坡, 往往句法已略相似矣, 豈非得於中者, 闇與之合?" 今觀眉叟詩 或,有七字五字從東坡集來. 觀文順公詩, 無四五字奪東坡語, 其豪邁之氣, 富贍之體, 直與東坡名合. 世以椿之文, 得古人體. 觀其文, 皆攘取古人語, 咸至數十字, 綴之以爲己辭. 此非得其體, 奪其語. (「咸」은 「或」의 誤 字일 것임.)

林椿도 李仁老와 李奎報에 못지않게 詩名을 누렸던 人物이다. 그래서 李奎報도 讀林椿詩[13]에서 "兒童猶解說君名"이라 하여 林椿의 詩名이 대단했던 것을 말했던 것이다. 위의 記事에서 崔滋는, 李仁老의 詩에 東坡의 詩語가 많이 들어 있음과 林椿이 古人語를 한 篇에 數十字씩 그대로 攘取해다가 자기 글처럼 쓴 것을 指摘하고 도리어 그렇지 않은 李奎報의 詩가 蘇東坡의 그것에 가까운 것만도 못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본래 林椿과 李仁老는 親密한 사이였고 李仁老가 林椿의 遺藁를 整理해서 西河先生集 6卷을 내주었을 정도였다.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는 당시 林椿과 李仁老의 系統을 끄는 蘇黃을 받드는 詩派가 李奎報의 系統을 끄는 一派와 隱然中에 對峙하고 있는 形局을 造成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林椿은 舊來로 崔滋의 말같이 古人의 語意를 그대로 끌어다 쓰는 習癖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던 것같다. 朝鮮時代에 내려와서의 記錄이지만, 曺伸(fl. 1497)의 謏聞瑣錄[14]에 林椿과 李仁老의 詩를 評說한 다음과 같은 記事가 보인다.

高麗 때의 佛僧 神駿의 聞鶯이라는 絶句는 이러하다.

農家의 오디 익고
보리 빽빽해지기 시작할 때
붉은 담보고 푸른 나무에서

(13) 前集 卷10.
(14) 詩話叢林本.

울어야 마땅하다
무슨 일로 거친 마을
쓸쓸한 곳에서
수풀을 격해 가끔
두서너 마디씩 보내오는가

西河 林椿도 다음과 같은 絶句 한 首가 있다.

농가의 오디 익고
보리 빽빽해지기 시작할 때
푸른 나무에서 처음으로
꾀꼬리 소리 들려온다
洛陽의 꽃 밑에서 온
누그네 알아 보고
은근히 백번이고 지저귀고
쉬지 않는 것 같다.

學士 李眉叟는 이 詩들을 評해서 "두 분의 詩는 전혀 서로 約束하지 않았는데도 쓰여진 말이 슬프고 한스러운 것이 한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첫째 詩는 事物을 읊은 것인데 지나치게 纖弱하고, 다음 詩는 心情을 말했는데 句法이 豪壯하다. 氣象이 다른데 한사람에서 나온 것 같다고 함은 무엇 때문이냐? 林의 詩는 歐陽公의 다음 詩를 본딴 것이다.

四月달 農家엔
보리 이삭 빽빽해지고
뽕나무 가지에 오디 나고
새 조잘댄다
鳳城의 푸른 나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날아 왔는가
꾀꼴새는

意境을 剽竊했을 뿐 아니라 그 말까지도 剽竊한 것이다.

高麗僧神駿聞鶯一絕云"田家椹熟麥初稠, 宜向紅墻綠樹鳴. 何事荒村寥落地, 隔林時送兩三聲." 林西河椿亦有一絕："田家椹熟麥初稠, 綠樹初聞黃栗留. 似識洛陽花下客, 殷勤百囀未曾休." 李學士眉叟評云"二公之作初不與之相期, 而吐辭悽惋, 若出一人之口." 予則以爲不然. 前詩, 詠物而失於纖弱; 後詩, 言情而句法豪壯. 氣象不同而云若出一人, 何耶? 林詩本歐陽公"四月田家麥穗稠, 桑枝生椹鳥啁啾. 鳳城綠樹知多少, 何處飛來黃栗留?" 非徒竊意, 乃竊其語也.

이렇듯 崔滋는 蘇東坡를 내걸고 나선 林椿과 李仁老 및 그 系統을 끄는 一派들을 批判하면서 古人을 踏襲하지 않고 新穎한 語意의 創出을 내세우는 李奎報를 極度로 높이 評價하였다. 崔滋가 당시의 後進들이 聲律과 章句를 崇尙한 나머지 琢字와 鍊對에 執着해서 雄傑老成한 作風을 喪失한 것을 指摘 批判한 것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取해진 態度라 하겠다.

## 四. 崔滋의 詩觀

崔滋는 補閑集의 自序 첫머리에서부터 당시 詩壇의 後進들의 作詩態度를 峻嚴하게 批判하고 있다. 崔滋는 詩의 的確한 定義는 보여주지 않고 있으나 詩, 또는 詩作은 어떠해야 하겠다는 見解는 表明하고 있다. 그가 自序에서 比興과 諷諭에 근본을 두고 있다고 한 것을 보면 原則的으로는 그는 雅正한 詩經의 敎訓性과 詩作을 連結시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詩經에도 比興의 手法이 있었던 것 같이 詩作에 있어서도 寓託하는 技法이 奇詭해야 氣韻이 生動해지고 含意가 깊어지고 表現이 뚜렷해져서 사람의 마음을 感悟시키고 微妙한 뜻을 드러내어 다침내는 올바른 데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寓託奇詭"라 하여 變化를

자아내는 多樣한 技法을 쓰는 것이 詩作에 필요하다는 것을 認定하면서도 그러한 技法에 지나치게 執着한 나머지 剽竊이나 지나친 修飾을 일삼는 일은 儒者는 取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崔滋는 당시의 後進詩人들이 琢字와 鍊對에 汲汲한 나머지 말이 生硬하고 詩意가 拙劣해져서 雄傑老成之風을 喪失하고 있음을 指摘하였고, 이른바 詩家의 琢鍊四格 가운데에서 儒者가 取하는 것은 琢句와 鍊意 두가지 뿐이지 前記한 琢字와 鍊對는 排除한다는 것이다. 崔滋는 補閑集 卷中에서 당시 後進詩人들의 矛盾된 作詩態度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글을 짓는 사람은 먼저 글자의 根本을 살펴야 하는 것으로, 무릇 經史百家에 쓰여진 것과 對照 調節해서 붓나가는 데 따라 使用하면 文辭가 精確 強力해져 얻기 힘든 巧妙한 말을 發할 수 있게 된다. 文辭가 만약에 精確 強力하지 않으면 비록 뛰어난 情感과 豪宕한 氣象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어 낼 곳이 없어 끝내는 拙劣하고 生澁한 詩나 文章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다. 史館 李允甫는 學識이 精確 宏博하여 詩와 文章에 다 根據가 있는데, 한번은 後學들이 글자를 使用하고 文體를 엮는 것을 웃으며 말하기를, "科擧의 글 다루는 버릇을 다 씻어 버린 연후라야 文章을 가리킬 수 있다."고 했다. 지금의 後輩들은 그때보다도 훨씬 못한데 으레껀 책읽기를 일삼지 않고 出世를 빨리 할려고 힘써 알기 쉬운 科擧의 글을 익힌다. 요행이 及第하면 여전히 學業向上에 힘쓰지는 않고 오직 푸른 것을 뽑아 흰 것과 비기고 하나를 세워 둘로 對를 만들고 生硬한 것을 다듬고 冷冷한 것을 깎는 것을 가지고 잘 하는 일로 여길 뿐이다. 그런 까닭에 이들은 前人의 詩文을 보면, 그것이 雅正 簡古한즉 質朴하여 본 받기 어렵다고 여기고, 雄深 奇險한즉 비틀려져 알기 어렵다고 여기고, 宏贍 和裕한즉 疎濶하여 잘 되지 못했다고 여겨 도시 생각을 해보려 들지도 않는다. 지금 사람의 詩와

文章을 보면 古今의 이미 쓰여진 말과 意境을 모아서 다시 그 文辭를 얽어매는 짓을 한 것이 있는데 生硬하고 卑弱하며 鄙俗하고 俚雜한 것이면 (그들은) 다 清婉하다고 여기거나 혹은 警苦하다고 여긴다. (그들은) 詩나 文章에 屈曲이 있어 자기 情感에 共鳴해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到達해 보지 못했던 곳이라 생각하고 反覆하여 詳細히 읽어 그 맛을 터득하기에 이르고야 만다는 일은 전연 모른다.

凡作者, 當先審字本, 凡與經史百家所用, 參會商酌, 應筆即使, 辭輒精强, 能發難得巧語. 辭若不精强, 雖有逸情豪氣, 無所發揚, 而終爲拙澁之詩文也. 李史館允甫, 學識精博, 詩文皆有根蔕, 嘗笑後學使字屬辭曰 "洗盡場屋習氣, 然後文章可教也." 今之後輩, 下於彼時遠矣, 例不事讀書, 務速進取, 習科擧易曉文. 幸得第, 猶未能勉益學業, 唯以抽青媲白, 立一對二, 琢生斫冷, 以爲工耳. 故見前人詩文, 雅正簡古, 則以爲朴質難效; 雄深奇險, 則以爲詰屈難知; 宏贍和裕, 則以爲疎闊未工, 都不容思. 見今人詩文, 有集今古已陳之語之意, 更爲結構其辭, 至於生弱鄙俚, 則皆以爲清婉, 或以爲警苦. 殊不知見詩文僵蹇不入我情者, 謂是爲己所未到處, 及反覆詳閱, 至得其味而後已也.

이렇게 崔滋가 당시의 後進詩人들에 향해 詰難과 酷評을 加한 것은 그의 晩年에 있었던 일이므로, 옹색한 保守的인 發言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그가 過激한 變革이나 稚拙한 見解를 牽制해서 中庸을 維持시키려는 意圖에서 나온 評說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러한 評說이 林椿과 李仁老의 系統을 끄는 一派의 新進詩人들에 대한 意識的인 批判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당시 詩壇에는 北宋末期의 中國詩壇의 影響을 받아 杜甫詩를 頂上에 받들고 蘇軾의 詩를 崇尙하고 黃庭堅 陳師道 등의 詩 내지 詩法을 愛好하는 傾向이 顯著했다고 짐작된다. 그런데 崔滋는 東坡詩를 崇尙하는 것까지는 詩作修鍊에 있어서의 底力供給源으로 받아 드리는 입장을 表明하기는 하였으나 山谷이나 后山의 경우 같은 琢鍊에 精力을 기울이며 苦吟으로 始終하는 일은 劇烈하게 批判하고 全然 받아 드리려고 하지 않은 것이

다. 그는 역시 補閑集 卷中에서 당시 杜甫와 東坡를 崇尙한다고 떠드는 新進詩人들이 실제로는 그 實을 걷우지 못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近世에 東坡를 崇尙하는 것은 그 氣韻이 豪邁하고 뜻이 깊고 말이 豐富하고 故事의 援用이 廣汎한 것을 사랑해서 그 體를 본 받기를 바라서이다. 지금의 後進이 東坡集을 읽는 것은 그것을 본 받아서 그 風骨을 터득하기를 원해서가 아니고, 다만 그것을 證據로 해서 故事를 援用하는 用具로 하자는 것이다. 剽竊조차도 말할 게 못되는데, 하물며 감히 杜甫를 배워 그 餘波를 얻을 수야 있겠는가.

近世尙東坡, 盖愛其氣韻豪邁, 意深言富, 用事恢博, 庶幾効得其體也. 今之後進, 讀東坡集, 非欲倣效以得其風骨, 但欲證據以爲用事之具, 剽竊不足導也, 況敢學杜甫得其波耶.

이러한 後進詩人에 대한 詰責을 吐露해낼 만큼 崔滋는 자기나름의 詩에 대한 見解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詩에 있어서의 氣 性 情 意에 관한 問題와 詩作에 있어서의 詩才와 情感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斷定的으로 말하고 있다.

詩文은 才氣가 主가 된다. 才氣는 天性에서 發하고 意境은 才氣에 의지한다. 말은 情感에서 나오는데 情感은 곧 意境이다. 그런데 新奇한 意境은 (그것을 나타내는) 말을 세우기가 더욱 어려워 자칫하면 生澁해 진다.……재주가 그 情感보다 나으면 비록 좋은 意境이 없다해도 말은 그래도 圓熟하다. 情感이 그 재주보다 나으면 말이 鄙弱해져 좋은 意境이 있다는 것을 알아 보지 못하게 된다. 情感과 재주를 겸해 얻은 후라야 그 詩에 볼만한 것이 있게 된다.

詩文以氣爲主. 氣發於性, 意憑於氣. 言出於情, 情即意也. 而新奇之意, 立

語尤難, 輒爲生澁.……夫才勝其情, 則雖無佳意, 語猶圓熟. 情勝其才, 則辭語鄙靡, 而不知有佳意. 情與才兼得, 而後其詩有可觀.

詩는 氣를 主로 한다는 崔滋의 見解는 中國文學評論史의 입장에서 본다면 天才論을 내세우는 保守的인 文學觀과 類似한 점이 있다. 魏文帝 曹丕(187—226)의 典論論文 첫머리에 "文以氣爲主. 氣之淸濁有體, 不可力強而致."(詩文은 才氣가 主가 된다. 才氣의 淸濁은 體가 있으므로 힘으로 無理하게 해서 가져오게 할 수 없다)[15]라고 했다. 여기에서 "氣"를 "才氣"라고 옮겼는데 그것을 좀 더 直截하게 理解하자면 결국 文學的인 天才性이다. 先天的으로 賦與되는 文學的이 天才性은 後天的인 造作이나 努力으로 생겨나게 할 수는 없다는 理論이다. 이러한 先天的인 天才論에 이어 學問이나 修鍊 같은 後天的인 努力의 重要性을 더 強調하기도 하였고 才學을 並重하는 主張도 나왔다. 그런데 崔滋는 典論論文의 論調를 緖頭로 하여 "意"는 곧 "情"이라고 斷定하고 그것이 氣에 依憑해 있고 言은 情에서 우러난다고 했다. 新奇之意는 결국 淸新 奇妙한 意境으로 그것은 詩에 살려지면 詩가 극히 좋아지는 것이어서 詩人이 追求하는 것으로 理解하는 입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新奇之意는 말로 나타내기가 한층 어려워서 자칫하면 詩가 生澁해진다는 것이다. 다음 그는 才와 情을 相對시켜 才情이 兼得해야 詩가 볼만해진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才는 앞에서 말한 氣 같은 先天的인 天才性을 말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才勝其情, 則雖無佳意, 語猶圓熟."이라고 한 것을 보면 才는 詩語를 다듬는 技巧 내지 才致를 말한 것으로 理解되므로 오히려 後天的인 鍊錯에서 獲得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情은 新奇之意를 捕捉하는 素質 내지 機能을 말하는 것으로, 才와는 相對的으로 先天的인 것에 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才情의 兼得을 좋은 詩를 生産시키는 要件으로 내세우는 것은 결국 先天的인

(15) 文選 卷52.

資質과 後天的인 素養의 調和 내지 兼備를 理想的인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의 闡明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崔滋의 詩觀은 대체로 李奎報의 그것을 承繼한 것이라고 하겠다. 白雲小說에는 다음과 같이 李奎報의 詩觀이 披瀝되어 있다.

詩는 意境이 主가 되므로 意境을 잡는 것이 가장 어렵고, 文辭를 엮는 것은 그 다음이다. 意境은 또 才氣가 主가 된다. 才氣의 優劣에 따라 意境의 深淺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才氣란 天性에 말린 것이어서 배워서 이룰 수는 없다. 그러므로 才氣가 떨어지는 사람은 글 다듬는 것을 能事로 여기고 意境을 앞세우지 않는다. 대체로 글을 깎고 다듬어 句를 아롱지게 하면 아름다움에는 틀림없다. 하나 거기에 深厚한 意境이 含蓄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에는 볼만하나 다시 씹어보면 맛이 없어져 버린다.

夫詩以意爲主, 設意最難, 綴辭次之. 意亦以氣爲主. 由氣之優劣, 乃有深淺耳. 然氣本乎天, 不可學得. 故氣之劣者, 以雕鏤其文, 丹靑其句, 信麗矣. 然中無含蓄深厚之意, 則初若可觀, 至再嚼則味已窮矣.

李奎報는 오히려 天才性의 優劣에 詩의 優劣을 直結시키고, 後天的인 修鍊에서 얻은 技巧 내지 才致는 詩에 決定的인 優秀性을 賦與하지 못한다는 점을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16]. 그러나 李奎報는 계속해서 作詩上의 技巧나 末端的인 方法에 관해서도 言及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

(16) 李奎報의 이러한 詩觀은 그의 論詩詩(後集 卷1)에 더욱 鮮明하게 나타나 있다. 論詩 : 作詩尤所難, 語意得雙美. 含蓄意苟深, 咀嚼味愈粹. 意立語不圓, 澁莫行其意. 就中所可後, 雕刻華艶耳. 華艶豈必排, 頗亦費精思. 攬華遺其實, 所以失詩旨. 邇來作者輩, 不思風雅義. 外飾假丹靑, 求中一時嗜. 意本得於天, 難可率爾致. 自揣得之難, 因之事綺靡. 以此眩諸人, 欲掩意所匱. 此俗寖已成, 斯文垂墮地. 李杜不復生, 誰與辨眞僞. 我欲築頹基, 無人助一簣. 誦詩三百篇, 何處補諷刺. 自行亦云可, 孤唱人必戲.

면 그가 後天的인 修鍊의 重要性도 어느정도 認定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李奎報가 提示한 作詩上의 忠告는 다음과 같다.

그렇기는 하지만, 먼저 押韻을 해봐서 意境을 나타내는데 妨害가 되면 고치는 것이 좋다. 남의 詩에 和作하는 데 있어서만은 險韻이 있으면 먼저 韻을 달 자리를 생각한 후에 意境을 配置한다. 句에 對句를 만들기 어려운게 있어 한참 沈吟해도 쉽사리 얻어지지 않으면 곧 버려 버리고 아까와하지 않는 것이 좋다. 構想하는데 있어, 생각이 깊고 偏僻하면 거기에 빠져 버리고, 빠져 버리면 執着하게 되고, 執着하게 되면 迷惑하게 되고, 迷惑하게 되면 固執不通한 弊端이 생긴다. 出入 往來하는데 變化가 自在해야 만 完熟의 境地에 到達한다. 때로는 뒷 句로 앞 句의 弊端을 求하는 수도 있고, 한 글자로 한 句의 安定을 돕는 수도 있으니 이 점은 考慮하지 않을 수 없다.

雖然, 自先押韵, 似若妨意, 則改之可也. 唯於和人之詩也, 若有險韵, 則先思韻之所安, 然後措意也. 句有難於對者, 沈吟良久, 不能易得, 則即割棄不惜, 宜也. 方其構思, 思若深僻, 則陷. 陷則着. 着則迷. 迷則有所執而不通也. 惟其出入往來, 變化自在, 而達于圓熟也. 或有以後句救前句之弊, 以一字助一句之安, 此不可不思也.

李奎報는 이러한 技巧論 이외에도 體格論 詩病論 剽竊論 등 여러가지 作詩上의 問題를 論하고 있다. 이러한 李奎報의 詩觀을 崔滋는 거의 變更 없이 承繼하였고 또 그것을 強有力하게 宣揚하였다고 하겠다.

한편 崔滋는 詩의 律調에 관해서도 多少 關心을 나타내고 있다. 補閑集卷上에 다음과 같은 記事가 있다.

내가 전에 風騷格의 平頭上尾 蜂腰鶴膝, 大韻小韻 正紐旁紐의 病을 論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好事者의 閑談이다. 어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옛날에 金의 使臣이 客館에 와서 묵고 있었는데

客館 뒤에 오이 꽃이 많이 피어 있었다. 使臣이 "苽花千萬發"(오이 꽃이 千과 萬으로 헤아리게 피어 났다)이라고 부르고 接伴에게 재촉하여 곧 對句를 말하라고 했다. 接伴이 "蓂葉兩三開"(냉이 잎이 두세개 벌러졌다)라고 했더니 使臣이 웃으며 받아 드리러 들지 않았고 또 對句를 대어도 역시 承諾하지 않았다. 한 下級官員이 앞으로 나와 "柳樹一雙垂"(버드나무 한 쌍이 드리워져 있다)라고 말했더니 使臣이 말하기를 "柳·樹 두 글자는 비록 同韻字가 아니기는 하나 音이 가까우니 對句로 쓸 수 있다"라고 했다. 接伴이 急히 말하기를, "그것은 어려울게 없오. 蓂을 莢으로 고치면 되오."했다. 使臣은 대단히 기뻐했다. 이것은 風騷格에서 말한 小韻病인데 金의 使臣이 犯한 것이다. 接伴이 비록 對를 만들지 못했다 해도 재주가 없는 것이 되지는 않았지만 마침내는 잘 對를 만들어 냈다.

予嘗見風騷格論平頭上尾, 蜂腰鶴膝, 大韻小韻, 正紐旁紐之病, 是好事者閑談. 昨日聞人言, 昔有金國使來寓客館, 館後苽花盛開, 使云"苽花千萬發," 促接伴即對. 伴曰"蓂葉兩三開." 使笑而不肯, 又對亦不諾. 有一胥吏進曰"柳樹一雙垂." 使者曰"柳樹二字, 雖非同韻, 聲相近可對." 伴遽曰"是不難. 宜改蓂爲莢." 使大悅. 此風騷小韻病也, 金使犯之. 接伴雖不能對. 不爲不才, 而卒能善對.

이것은 崔滋가 風騷格에 있어서의 八病說을 論한 것을 보고 그러한 聲病說은 不必要한 것이어서 作詩에 臨해서 考慮할 價値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筆者는 아직 이 風騷格은 보지 못했다. 혹시 唐 齊己의 風騷旨格인가 하고 찾아 보았으나 八病說은 全然 言及되어 있지 않다. 崔滋는 여기서 律詩를 짓는데 있어서의 八病說의 適用에 대해 否定的인 態度를 表明한 것이다. 사실 律詩가 定着된 段階에 있어서는 八病說의 問題는 이미 調整되어 졌으므로 律詩를 짓는데 있어서는 律詩의 規律만을 遵守하면 따로 八病 問題에 介意할 必要는 없는 것이다. 崔滋가 그것을 好

事者의 閑談으로 돌려버린 것은 當然한 일이다. 다음의 記事에는 聲病에 관한 崔滋의 다른 한가지 態度가 表明되어 있다.

學士 李知深의 題豐州城頭樓詩는 이러하다. "하늘과 바다는 가이 없어, 망망하여 바라 보아도 끝이 없다. 사람은 千里를 내다보는 눈(갖게 되고), 六月에 九月달 가을 바람 불어 온다. 그림으로 묘하게 그려 내기 어려울 게고, 글로인들 어찌 잘 써 낼 수 있겠는가. 단지 날개가 돋아, 돔이 넓은 虛空에 있는가 싶어진다." 당시 사람들이 이 詩를, 말은 가다듬지 않았는데도 氣象이 豪盪하고 意境이 넓다고 하였다. 그렇기는 하나 열 글자 가운데서 가이 없다고 말하고 또 끝이 없다고 말했고, 혹은 위에서 바라 보아도 끝이 없다고 말하고 아래서 千里를 내다보는 눈을 말 했으니 뜻이 겹친 것 같다. 그러면서도 읽으면 겹친 뜻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대체로 聲病이 없어서이다. 옛 사람이 聲病을 回避하는 것을 金針格으로 여겼는데, 정말 그렇다.

李學士知深題豐州城頭樓云"天與海無際, 茫茫望不窮. 四方千里目, 六月九秋風. 圖畫應難妙, 篇章豈得工? 只疑生羽翼, 身在大虛中." 時人以此聯, 言不雕鑿, 而氣豪意裕. 雖然, 十字中言無際, 又言不窮, 或上言望不窮, 下言千里目, 似乎意疊, 而讀之不知有相疊之意者, 蓋無聲病也. 古人以回忌聲病, 爲金針格, 信哉!

古人이 聲病을 回避하는 것으로, 실상은 시원치 않은 詩를 좋게 여겨지게 만드는 直截한 方法으로 생각한 것을 例를 들어 그것에 贊同하는 態度를 表明한 것이다. 그러나 律詩에 있어서의 聲病이란 詩律을 遵守하는 일 이외에는, 孤平이나 下三平을 避한다던지 하는 몇가지 慣例 정도이고, 별로 複雜한 것은 없다. 이상 두가지 記事를 통해 崔滋는 近體詩의 聲律問題에 관해서는 그리 神經을 쓰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崔滋는 詩의 評論에 대한 자기의 見解를 다음과 같이 披瀝하고 있다.

詩를 評하는 사람은 먼저 氣骨과 意格을 살피고 그 다음에 辭語와 聲律을 살핀다. 같은 意格 가운데도 그 韻語에 혹 優劣이 있어 한 首에 (意格과 韻語가) 다 잘 된 것은 극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評하는 말 역시 뒤섞여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詩格에 이르기를 "句가 老鍊하고 글자가 俗되지 않으며 이치가 깊으나 意境이 뒤섞이지 않고, 재주가 自在하게 發揮되면서도 성내는 氣味가 없고, 말은 簡潔하면서도 (다룬) 일은 어둡지 않아야 비로소 風騷에 들어가게 된다."이 말은 스승으로 바뜰만하다.

夫評詩者, 先以氣骨意格, 次以辭語聲律. 一般意格中, 其韻語或有勝劣, 一聯而兼得者盡寡. 故所評之辭, 亦雜而不同. 詩格曰 "句老而字不俗, 理深而意不雜, 才縱而氣不怒, 言簡而事不晦, 方入於風騷." 此言可師.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辭語와 聲律보다 氣骨과 意格을 앞세운 그의 評詩態度다. "詩文以氣爲主云云"한 그의 詩觀을 土臺로 하여 展開시킨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評詩方法을 내세운 崔滋는 또 李仁老 李奎報 등 先輩詩人들이 詩를 다루는데 극히 愼重을 期한 事例를 列擧한 후에 다음과 같이 自謙하는 말을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나는 젊은 나이에 春坊에 入侍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해도 官의 職責이 없은 적이 없어서 讀書를 일삼을 겨를이 없었고 한갓 膚淺한 學問으로 猥濫되이 빈 자리를 메워왔다. 벼슬이 學士에 이르자 붓을 잡고 얼굴에 땀을 지웠으니 어떻게 文章의 優劣을 알아 망녕되이 붓과 혀를 놀릴 수 있겠는가. 다만 老成한 사람을 보게 되어 그 餘論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들은 것을 대충 적어서 後進에게 보이도록 傳하는 것이다.

予自少年入侍春場, 至於今日, 無一歲無官員, 不暇專讀書, 徒以膚淺之學同

味承乏. 官至學士, 秉筆汗顏, 何足知文章之勝劣, 妄爲筆舌哉. 但以及見老成人, 得聞餘論, 故粗記以所聞, 傳示後進云.

## 五. 風 格 論

風格은 風神品格의 略語로, 詩의 風格이라고 하면, 詩가 자아내는 美感의 種類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詩의 風格을 비교적 잘 整理한 것으로는 唐末 司空圖(837—908)의 詩品을 들게 된다. 司空圖는 詩의 風格을 다음과 같은 24種으로 設定했다.

| | | | | |
|---|---|---|---|---|
| 1. 雄渾 | 2. 冲澹 | 3. 纖穠 | 4. 沉着 | 5. 高古 |
| 6. 典雅 | 7. 洗鍊 | 8. 勁健 | 9. 綺麗 | 10. 自然 |
| 11. 豪放 | 12. 含蓄 | 13. 精神 | 14. 縝密 | 15. 疎野 |
| 16. 清奇 | 17. 委曲 | 18. 實境 | 19. 悲慨 | 20. 形容 |
| 21. 超詣 | 22. 飄逸 | 23. 曠達 | 24. 流動 | |

司空圖는 이렇게 標出한 하나하나의 風格을 四言 12句 隔句韻體의 詩로 解說했는데, 抽象的인 用語를 驅使하였음은 물론이고 아울러 象徵的인 방법으로 그 形似한 언저리를 誇張氣를 띠워 形容해 낼려고 했다. 一例로 豪放의 解說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觀花匪禁, 呑吐太荒. 由道返氣, 處得以狂. 天風浪浪, 海山蒼蒼. 眞力彌滿, 萬象在傍. 前招三辰, 後引鳳凰. 曉策六鰲, 濯足扶桑.

〔꽃 구경 막지 않고, 八荒의 끝에까지 숨을 느리쉬고 내쉰다. 正道로 해서 豪氣로 돌아가, 處身하는데 拘束을 받지 않게 된다. 天上의 바람 물결 치듯 끝없이 動盪하고, 바다 위의 산 한정 없이 푸르르다. 진실된 힘이 안에 가득 차 있고, 森羅萬象이 곁에 느러서 있다. 아으로는

해와 달과 별을 부르고 뒤로는 鳳凰을 끌어 당긴다. 새벽에 여섯마리 큰 거북 채찍쳐서 扶桑에서 발씻는다.〕

이렇게 標出한 種의 風格 사이에는 결코 어떠한 優劣을 둔 것이 아니고 그 전부는 다 각각 詩에 살려지면 司空圖의 이른바 味外之旨 내지는 韻外之致를 나타내어 詩를 全美한 단계로 올려 놓는다는 것을 無言中에 前提한 것이다. 이러한 詩의 風格 設定 내지 그 解說은 본래 全美한 詩作을 指導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겠으나 실제로는 詩作에 별로 큰 도움을 주기는 퍽 힘들었던 것 같다. 詩의 風格 設定과 그 解說은 도리어 消極的으로 이미 지어진 詩를 理解 내지 鑑賞하는데 적이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한 首의 詩가 飄逸하다던가, 한 詩人의 詩가 雄渾하다던가, 한 詩派의 詩가 綺麗하다던지 한 時期 내지 한 時代의 詩가 典雅하다던지 해서 詩의 槪評을 試圖하는 경우에 그 공통된 風格上의 특색을 摘出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詩의 風格에 관한 論議는, 詩의 實質的인 內容보다도 오히려 그런 것을 度外視한 詩의 純藝術性에 무게가 두어져 詩가 다루어 져서부터 활발하여졌다. 司空圖의 詩品에 관해서는 拙文 "司空圖와 그의 詩觀"(亞細亞硏究 第18號, 1965年 6月 〈卿輅 李相殷博士華甲紀念 東洋學論叢〉 參照.)

崔滋의 補閑集에는 他家의 詩話에 비해 洗錬된 詩評이 많은 편이고 風格論으로 看做할 수 있는 條例가 몇가지 提示되어 있다. 補閑集 卷下에서 崔滋는 杜甫의 詩로 代表할 수 있다고 본 雄深奇妙하고 古雅宏遠한 詩句는 되풀이 해서 자세히 읽어 본 후에야 그 맛을 터득하게 되기 때문에 詩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前提하고서, 그렇지 않고 한번 보면 곧 좋아하게 되는 詩例를 들어 二字語의 評語 21種을 提示하였다. 이것은 好事者가 한 것을 자기가 收錄한 것 같이 썼으나,

그것은 一種의 虛構에 不過하고, 실은 崔滋 자신이 試圖한 것임에 틀림없다. 崔滋의 이 21種의 評語는 우리에게 司空圖의 24詩品을 聯想하게 해준다. 司空圖는 提示한 風格을 解說하는 四言詩를 붙인데 比해 崔滋는 評語에 解說은 붙이지 않았으나 評語 하나하나에 그것에 該當하는 詩句를 例示했다. 이러한 詩句例示의 方法은 도리어 實證的인 것으로 받아 드려진다. 提示된 種의 評語 사이에는 優劣의 分別을 내세우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더욱 그것을 同等한 價値를 지닌 風格의 提示로 받아드릴 수 있다. 21種이 評語와 例示된 詩句는 다음과 같다.

1. 新 警

渡了幾人舟自泛,
噪殘孤虎鳥猶鳴.
(李奎報, 萬日寺樓)

2. 含 蓄

萬里行裝春已暮,
百年計活夜何長.
(芮學全, 閑居)

3. 婉 麗

密葉翳花春後在,
薄雲漏日雨中明.
(李奎報, 夏日即事)

4. 清 峭

墮檻松聲清刮夜,
倚空山骨冷磨秋.
(皇祖, 北山寺)

5. 俊 壯

天馬足驕千里近,
海鰲頭壯五山輕.
(金克己)

6. 富 貴

鶯花別院笙歌咽,
東駕高門劍佩鳴.
(趙伯琪)

7. 精 彩

霜花照日添秋露,
海氣干雲散夕霏.
(李奎報, 甘露寺)

8. 飄 逸

風吹釣叟帆邊雨,
山染沙鷗影外秋.
(陳華, 江上)

9. 清 遠

別洞白雲欹枕送,
到山明月卷簾迎.
(皇祖, 北山聖居寺)

10. 奇 巧

走藤遇曲難成杖,
臥木因高偶作梯.
(李奎報, 興聖寺)

11. 志 寓

地側逆流雖湊北,
時平沔水會朝東.

(李百全, 東山溪亭)

12. 優 游

周行世界閑僧坐,

遍閱夫郎考妓休.

(李奎報, 乞退後)

13. 感 懷

病憶故人空有淚,

考思明主若爲情.

(李奎報, 病中)

14. 豪 易

林間出沒幾多屋,

天外有無何處山.

(李仁老)

15. 清 駛

閑雲頃刻成千狀,

流水尋常作一聲.

(李奎報, 北寺樓)

多情塞月圓還缺,

少格山花落又開.

(金克己)

16. 幽 博

讖雨廢池蛙閣閣,

相風枯樹鵲查查.

(金克己)

厭雲寒麝爭穴燥,

避風幽鳥擇枝低.

(李奎報, 興聖寺)

17. 明 媚

雨送紫茸歸野蕨,

風催青子上江梅.

(金克己)

雨晴草色連空綠,

風暖梅花度嶺香.

(李奎報) 此二聯一骨, 而雨送之聯其氣飄然.

18. 爽 豁

一溪明月憑欄夜,

萬里清風卷箔天.

(鄭知常, 嶺南寺樓)

半壁夕陽飛鳥影,

滿山秋月冷猿聲.

(李奎報, 北山寺)

萬柳影中南北路,

一溪聲裏兩三家.

(李奎報, 龍潭寺) 皆一骨也. 萬里清風之語尤佳.

19. 華 艶

誥筆暖霑紅藥露,

朝衣輕颺紫薇風.

(外王父, 上李諫議純祐)

滿衣花影朝温室,

一徑松陰退冷齋.

( 〃 , 上奇相國)

風細佩聲傳紫禁,

日高花影上紅墻.

(李仁老)

日照花塼迎醉步,

月和蓮燭映回廊.

(李仁老)

花院雨晴紅露泣,

筠階日午碧霜乾.

(外王父) 此五聯皆一骨也. 滿衣花影之語, 句格尤勝.

20. 筊 壯

一聲鼓角青山裂,

萬里旋旗白日濛.

掃盡河山還聖主,

洗回風月付詩翁.

三鼇山峻忠誠壯,

五鳳樓高國手雄.

(皇祖, 上文烈公西征)

乾坤摠入吹噓內,

草木猶榮顧眄前.

(李奎報, 占韻賦晉康公第蟠松)

十川蛇遶平章洞,

三峴龍蟠學士家.

(崔宗蕃, 登高望長安) 此五聯皆一骨也. 上文烈公三聯最爲清雄.

21. 壯 麗

海爲門作琉璃闕,

山自花開錦繡都.

(劉冲基, 初入新都)

一江風月金門遠,

萬國烟花玉輦春.

(金莘鼎, 新都夜直) 皆一骨而劉尤贍壯.

例示된 詩句는 다 七言律詩의 對句이고 詩人은 13人으로 李奎報의 12例가 가장 많다. 例句 引用에 偏頗的인 흠은 없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李奎報의 詩를 尊崇하는 태도를 如實하게 나타내고 있다. 例句가 評語에 適合한가의 與否를 嚴密하게 따진다면 여러가지 問題가 없지는 않겠으나, 하여튼 風格을 나타내는 抽象的인 用語를 提示하고 그러한 美感을 자아낸다고 自認한 例句를 보여 준 것은 상당히 自信이 있고 實證的인 評詩家의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17).

崔滋는 다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風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詩語를 上·次·病 3種으로 大分해서 그 優劣을 역시 卷下에서 提示하였다. 上·次·病에 表示한 評語가 앞서의 21種과 완전히 合致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病에 속하는 評語는 21種에 들어 있지 않다. 三大分한 評語는 다음과 같다.

〔上〕

1. 新奇絶妙　　2. 逸越含蓄

3. 險怪俊邁　　4. 豪壯富貴

5. 雄深古雅

〔次〕

1. 精儁遒緊　　2. 爽豁清峭

(17) 齊己의 風騷格者에도 體勢名에 一聯 씩의 例句를 提示하는 方法이 쓰여져 있고, 詩人玉屑에서도 역시 그러한 例를 찾아 볼 수 있기는 하다.

3. 飄逸勁直　　4. 宏贍和裕

5. 炳煥激切　　6. 平淡高邈

7. 優閑夷曠　　8. 清玩巧麗

〔病〕

1. 生拙野疎　　2. 蹇澁寒枯

3. 淺俗蕪雜　　4. 衰弱淫靡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식으로 詩의 風格에 優劣을 매기는 것은 個人的인 性癖이나 嗜好에 따라 그 樣相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崔滋의 경우를 살펴 본다면, 上·次·病의 優劣을 定하는 基準은 提示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대체로 앞서 그가 評詩의 順序를 말한 것에 依據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詩를 評하는데 있어 氣骨과 意格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辭語와 聲律을 살펴야 한다고 그는 말했던 것이다. 이 崔滋의 風格優劣의 決定은 대체로 氣骨과 意格이 뒷바침이 되어서 우러나는 것을 上으로, 辭語와 聲律의 效果가 뒷바침이 되어 생겨나는 것을 次로 그 어느쪽도 다 부실한데서 招來하는 것을 病으로 각각 돌린다는 것을 基準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겨진다.

## 六. 結　語

崔滋는 詩文上의 才質이 卓越하였으나 自重하고 남에게 誇耀하는 일이 없어 그 實力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당시 文翰을 맡고 있던 李奎報에게 우연한 기회에 認定을 받는 바 되어 결국 강력한 推薦을 받고 철저한 시험을 거쳐 급기야는 崔瑀 執權下에서 詩文上의 才質를 발휘할 수 있었다. 崔滋는 李奎報의 그러한 知己之恩을 잊지 않았다. 그는 補閑集에서 李奎報가 자기의 실력을 알아 준 經緯를 밝혔을 뿐 아니라 李

奎報가 자신을 낮추고 남의 사소한 좋은 점까지도 極口 推奬해 주는 훌륭한 人物임을 實例로 들어가며 되풀이 소개했다.

崔滋 당시의 漢詩壇에는 林椿 李仁老의 系列을 끄는 "剽竊刻畫"하고 "誇耀青紅"하며 琢字와 鍊對에 沒頭하여 辭語와 聲律을 앞세우는 一派가 상당한 氣勢를 빼치고 있었던 것 같아 崔滋는 그러한 점을 補閑集에서 자주 指摘 批判하고 있다. 李仁老의 破閑集은 李仁老 자신과 그 系列의 詩人 내지 詩法을 다루는데 그친 것으로, 이러한 말하자면 偏頗性을 調整하고 辭語와 聲律보다도 氣骨과 意格을 앞세우는 李奎報의 系列을 끄는 詩人 내지 詩法을 다루려는 底意에서 崔滋는 補閑集을 編述한 것이라고 하겠다.

李奎報가 베푼 知己之恩을 잊지 않았을 뿐 아니라 崔滋는 李奎報의 詩를 가장 正確하게 理解하는 사람으로 自處하였고 나아가서는 李奎報의 詩的인 天才性과 李奎報詩의 優越性을 鼓吹하는데 全力을 기울였다. 補閑集에는 그렇듯 李奎報와 그 詩를 다룬 記事가 많은데, 崔滋는 李奎報가 詩的인 天才性을 지닌데다가 그것에 相符하는 努力이 뒷받침되어 있어 奔放自在하게 詩筆을 驅使하여 大家의 境地를 開拓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여러가지 角度에서 說明하고 있다. 당시 李奎報를 李白에 견주거나 또는 李白을 凌駕하는 詩人으로 讚揚하는 事例를 紹介하고 崔滋는 天才로는 李白에 人才로는 白居易에 李奎報를 비겨 天才와 人才를 兼備한 것으로 말했다. 본래 李奎報는 白雲居士傳에서 自身을 陶淵明에 견주기도 하였으나 崔滋는 그런 점에는 言及하지 않았고 李奎報 晩年에 白居易에 自比한 것을 실지로 李奎報가 그런 資質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말한 것이다. 또 李奎報의 創出新意하는 特性은 歐陽修詩의 傾向을 聯想시키는데 그런 점 역시 補閑集에는 言及되어 있지 않다. 한편 東坡詩를 내세우는 林椿과 李仁老에 비해 李奎報는 語句의 襲用 내지 剽竊은 없으면서도 도리어 東坡에 가깝다고 말한 점은 우리의 注目을 끈다.

補閑集에는 李仁老詩는 대체로 尊重하는 입장에서 다루어졌으나 그래도 貶抑하는 語辭가 間或 加해지고 있고 林椿詩에 대해서는 酷評이 加해져 있다.

崔滋는 詩의 氣 性 情 意와 才와 情이 관계 등을 論해서 詩에 대한 確固한 見解를 披瀝했다. 좋은 詩의 生産은 先天的인 資質이 基本要件이 되지마는 後天的인 素養과의 調和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했다. 이러한 崔滋의 詩觀은 대체로 李奎報의 그것을 繼承 調節한 것이다. 崔滋가 詩를 評할 때 氣骨과 意格을 먼저 살피고 聲律과 辭語는 그 다음에 한다고 한 것도 그의 "以氣爲主"를 내세우는 詩觀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또 崔滋는 詩의 風格을 提示하고 그 實證的인 方法을 취하고 더 나아가서는 風格 사이의 優劣까지 지워 보이는 등 自信 있는 詩論을 시도했다. 이러한 것은 崔滋가 詩話를 내어 남의 詩를 이야기하고 남의 詩를 批評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입장을 뚜렷하게 表明한 것으로 評詩者로서의 正當한 態度라고 하겠다.